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7.(목) 06:00 < 11.7.(목) 석간 > 배포 2024. 11. 6.(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동위원회 열려

- DEPA 추가 가입희망국의 협상 현황 점검
- 한국, 페루 DEPA 가입작업반의 의장국 수임

11.7일 오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4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에 DEPA 가입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DEPA는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으로, '24.5월에 한국이 최초로 추가 가입

** 회원국 간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협정 개정, 가입 승인 등) 논의를 위해 필요시마다 개최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 5월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DEPA 추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DEP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 코스타리카 등과의 가입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입협상)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가입의사 표명)페루·엘살바도르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으며,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DEPA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3-48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개요**

1. 개요

□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

○ **CPTPP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과, 국별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협력 이슈**를 포함

< DEPA 주요 내용 >

분야	규범	협력
전자상거래 원활화	▲ 종이없는 무역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 물류, 특송화물 ▲ 전자송장, 전자결제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 개인정보 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 스팸메시지 규제	▲ 사이버 보안 협력 ▲ 온라인 안전 ▲ 인터넷 접근 및 이용원칙 등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 국가간 정보이전 원활화 ▲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 암호화 ICT 제품에 특정 암호기술 요구 금지	▲ AI 기술 및 윤리거버넌스 협력 ▲ 경쟁 정책 협력 ▲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SME 대화 ▲ 데이터 혁신, 핀테크 협력

2. 한국의 DEPA 가입

□ **(추진 경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DEPA 가입절차를 개시**('21.10월)

* 과거 P4(싱·뉴·칠·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

○ '22.1월부터 **6차례 협상**(각 조항의 내용과 국내 법령·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 **'23.6월 가입협상 실질타결 → '24.3월 가입서 기탁 → '24.5.3 가입 발효**

□ **(기대효과)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 또한,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 및 **디지털 SME(중소·중견기업) 대화**를 통해, 회원국간 **제도 조화 및 신기술 협력** 토대 마련